



2천 원의 후원금

교우 여러분,

오늘은 십여섯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매년 연중 제32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하고 전국 각 본당에서 평신도의 강론과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헌금을 실시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세상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넓히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교구장 사목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의 지표 아래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1) 해양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사업’ 2) 해외선교 및 협력사업으로 ‘캄보디아 포이펫 돈보스코학교’ 의약품 및 상수도 지원사업 3) 신앙심 고취를 위한 거제, 마산, 창원지구 내의 ‘공소 순례’ 등 크고 작은 일을 하면서 하느님 사랑의 현존을 체험하였고 많은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는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공소 순례’는 많은 교우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훈훈한 미담 사례도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낸 한 공소 당 2천 원의 후원금으로 작년 한 해 4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았고, 공소의 지붕 도색공사, 수세식 화장실 공사, 회합실과 사제관 내외부 공사, 냉난방기를 비롯한 공소 주차장 포장 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타 교구의 한 독지가는 마산교구 공소를 위해서 달라며 큰 후원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포이펫 돈보스코학교 상수도 설치 및 의료사업을 교구 단체인 ‘루멘회’와 ‘여성협의회’ ‘의료봉사팀’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의약품과 생필품을 후원받는 과정에서 75개 본당의 전 교구민들께서 정성으로 참여하셨고, 생각지도 않았던 3천만 원이라는 후원금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11월 30일 ‘캄보디아 방문단’과 치과의사 6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하느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지속하여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교우 여러분,

그동안 마산교구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크나큰 은총으로 복음화의 터전이 될, 새 교구청을 교구민의 기도와 희생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이제 새 교구장 주교님을 하루빨리 보내 주실 것을 일치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결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교우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록 대건 안드레아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지혜 6,12-16

화 답 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 2 독 서

1테살 4,13-18 또는 4,13-14

복 음

마태 25,1-13

위령의 날 교구 합동 위령미사



교구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가 11월 2일 고성 이화공원묘원에서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주례와 교구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이날 1,400여 명의 신자가 참석하여 세상을 떠난 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였다.

교구 신학생 부모 피정



교구 성소국(국장: 최문성 마르코 신부)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신학생 부모를 위한 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피정은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루카 11,1)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인 기도에서 친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신학생 부모로서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 그리고 어려움 등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교구 평협 제1기 생태영성 탄소중립 아카데미 개최

교구 평협(담당: 최봉원 야고보 신부, 회장: 최종록 대건 안드레아)은 10월 28일 교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교구 사제, 수도자, 평신도, 일반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생태영성 탄소중립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강의 강영구 루치오 신부(성사전담)의 ‘생태영성과 탄소중립’ 제2강의 강석중 요한 보스코(평협 생태분과위원장,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의 ‘왜, 탄소중립인가?’ 제3강의 윤체영 마리안나(평협 생태환경분과위원, 생태환경 강사)의 ‘공동의 집을 지키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루어졌다. 생태환경에 대한 신앙적 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중동본당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Pr.’ 2,000차 기념 주회



중동본당(주임: 김종필 가브리엘 신부) 창원 제4천지의 여왕 Co. 소속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Pr.(단장: 김성룡 F사베리오)은 10월 31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Pr.은 1984년 1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9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은 기념 주회를 통하여 40년 동안 선배 단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믿거름 삼아, 지금의 단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2,000차 주회를 맞이하게 되었음에 감사를 전하였다. 앞으로도 하느님 보시기에 더욱 열심히 하는 레지오 단원이 되기를 다짐하였다.



세례성사와 교회법 (4)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을 때 세례명을 짓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세례명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Q 세례명은 왜 필요한가요?

A 세례 때에 세례명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 주는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기에 새로운 영적 이름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과와의 만남으로 변화된 이름이 자신의 소명과 연결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창세 32,29)로,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 참조)로, 사울이 바오로(사도 13,9)로 바뀌었습니다.

Q 세례명은 꼭 필요한가요?

A 교회법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이 없다고 해서 무효한 세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회에서는 세례 때에 세례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간혹 세례는 받았지만 기록이 없어 세례명을 모르는 분들도 세례명을 모른다고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작성 세례대장을 만들면서 세례명을 정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세례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세례명은 수호성인들의 전구와 사랑의 모범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지이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징표”(2156항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명은 단순히 필요성의 여부를 떠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자 선물로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Q 세례명을 바꿀 수 있나요?

A 교회법에서는 세례명을 바꾸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꿀 수 없습니다. 간혹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서 세례명을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세례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례명에 다른 성인의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원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이유로 세례명을 변경하는 것도 2015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 총회에서 사목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세례명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견진성사를 받을 때도 세례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알차게 채우며 열 살을 향해 나아가는 하청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아직 열 살이 되지 않은 거제의 막내 예쁜 하청본당이다. 성당건물 외벽에 붙어 선 성모상과 그 아래 알록달록 타일 무늬가 정답게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작은 성전에 들어서면 밝은 타일화로 구성된 '십자가의 길' 각 처들이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제대 왼편에 본당주보성인 요셉상이 아기예수님을 안고 서 계신다. 모든 가정의 수호자 요셉에 따라 신자들의 가정도, 신자들의 마음도 온화하게 다스려진다.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공동체

주일미사를 올리는 시간, 세대차 나는 복사가 눈길을 끈다. 20대 청년과 70대 노년이 사제의 좌우에 선 모습이 정다운 이 성당의 한 면을 보게 한다. 왼편 창가로 자리한 열 명쯤 되는 성가대가 소리를 높인다. 미사곡도 어렵사리 신자들을 리드하며 전례를 돕는다. 반주의 시작이 더더도 이현우 요한 주임 신부는 미소를 띠며 기다린다. 신자들도 덩달아 기다려 함께 소리를 모은다. 작은 성당을 채우는 노래는 그리 매끄럽지 않아도 소중하게 들린다. 강론 때 사제는 먼저 성가대의 첫 출발이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말한다. 지난주에 결성했는데, 벌써 실행에 옮겨 완전한 미사 봉헌을 이루니 가슴이 벅차다고 한다. 여든 살이지만 이문자 마리아 지휘자는 지역사회에서도 활동하는 인재다. 반주자를 삼고초려 끝에 구해 오고, 남녀 성가단원을 모아 주님 찬미의 노력을 기울인다.

공지사항 시간에는 다른 교구에서 처음 이 성당에 온 한 가족 네 명이 앞으로 나가 선물을 받고 환영받는다. 가족여행을 와서 인근 리조트에서 묵고 있단다. 이처럼 하청성당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온다. 가족적인 작은 성당을 방문한 외지 사람들은 모두들 감동을 안고 떠난다. 하청성당 주보 1면에는 특이하게 성당청소 조별명단이 큼직하게 게재되어 있다. 성전 안팎이 늘 반짝반짝 빛나는 비결이다. 신자들은 내 집처럼 성당을 가꾸고 아낀다.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공동체

미사 후 로비에는 정영숙 사비나 사목회장이 술선수범차를 봉사하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룬다. 올 5월에 개편된 사목위원회는 처음으로 여성이 회장을 맡아 특히 친교에 힘을 모으고 있다. 회장을 비롯하여 사목위원들은 특전미사와 중심미사에서 신자들을 맞아들이고, 배웅하는 일에 사제와 함께 정성을 다한다. 서로 칭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바탕 인사들이 오가고 신자들이 떠난 후, 로비 한쪽에 놓인 긴 원목탁자에는 연령회 월례회가 진행된다. 옥학석 요한 회장과 사제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둘러앉아 구성진 시작기도를 올린다. 전신자가 연령회원이라 회비를



연령회



납부하고, 활동 회원들은 정기모임에 참석하며 직접적인 활동을 한다. 옥 회장은 마지막 공소 회장을 역임했다. 장평 성당에서부터 연령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이곳에서 연령회장을 맡아 9년째 이어오고 있다. 다른 회원들도 신심단체에서 열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이현우 신부는 이곳 신자들이 본당뿐 아니라 교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구에서 주관하는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자랑한다. 3년 전 서울서 귀촌하여 지나가다 성 모님에 끌려 교적을 옮겼다는 한 형제는 연령회에서 활동하며 가만가만 정을 쌓고 있단다.

기쁨 가득한 열린 공동체

2014년 12월에 하청성당이 설립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55년에 장승포본당 관할의 하청공소를 개소하여 이 지역의 신앙의 모태가 되었다. 1975년에는 고현본당 설립으로 그 관할이 되었다가, 1994년에 장평본당 설립으로 그곳 관할로 변경되었다. 2013년부터 본당 승격의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을에 성전 신축 기공식을 가졌고, 이듬해 7월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의 집전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그해 겨울에 장평성당에서 분가하여 하청본당으로 승격하였다.

신자들은 죽순을 팔아서 성전 건립에 나섰던 때를 회고한다. 유자차와 김도 팔겠다고 교구의 본당을 찾아다녔던 지난한 시간들이 축복의 날로 변화되었다. 한 신자는 장평까지 차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갔는데, 하청성당이 생겨 기쁨 뛰는 마음으로 감사할 뿐이란다. 또 냉담을 풀고 평일미사에 참여하며 얼마나 큰 기쁨을 얻는지 모른다는 사람도 있다. 아침에 미사에 왔다가 오후에 기도회에도 오며 성당을 들락거리며 애지중지하는 신자들이 많다.

하청성당 문은 24시간 열려 있다. 신자들이 수시로 오며가며 기도하고, 여행자들도 들러 성체조배를 할 수 있다. 언덕 높은 곳에 자리한 성당의 종탑 예수성심께서 '다 나에게로 오라'고 팔을 벌리신다.

더 안정된 열 살을 향해

초대 주임 김인식 신부는 새 본당 새 살림을 꾸리며 자리를 잡느라고 동분서주 3년을 보냈다. 2대 주임 남영철 신부는 2년 동안 안팎의 필요한 가구와 시설을 목재로 장만하고 틀을 갖추었다. 3대 주임 김형렬 신부는 코로나19의 난관에 맞닥뜨려 3년 동안 내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

4대 주임으로 올해 부임한 이현우 신부는 코로나가 해제되었기에 공동체의 분위기를 되살리는 사목을 해야 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설립 10주년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다. 체제정비를 위해 골몰하며 조금씩 나아가려 한다. 새로운 선교보다는 냉담자 위주로 가정방문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소공동체 미사를 실시하여 신자들을 가깝게 만난다. 성가대, 소공동체, 레지오가 중심을 잡고 다른 신심단체에서도 신자들이 활동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신심 깊은 어른들이 가족들을 신앙으로 잘 이끄는 성당이라 사목자를 잘 따라주는 점이 늘 고맙다. 하나씩 더하고 안정되어 가는 하청성당이다.



기억할 선종 사제
김병운(라이문도) 신부
1998년 11월 13일

故 김병운 라이문도 신부 25주기 추모미사

일시: 11월 13일(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교구장 서리 동정

사제총회

일시: 11월 14일(화)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 미술인회 협회전

일시: 11월 15일(수) 17:00
장소: 진해야외공연장

교구 성경잔치 파견미사

일시: 11월 19일(주일) 15:00
장소: 교구청

교구/본당

사제총회

일시: 11월 14일(화)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월례모임

일시: 11월 14일(화) 14:00/ 장소: 교구청

소공동체장 연수

일시: 11월 14일(화) 12:45/ 장소: 신안동성당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11월 15일(수) 10:00/ 장소: 중동성당

제12회 교구 성경잔치

일시: 11월 19일(주일) 10: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11월 기도모임

일시: 11월 20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슴자이(10:50)-반송(11:00)-
시티(11:06)-현대주유소(11:16)-

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9399·5454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동근 세상만들기'

일시: 11월 19일(주일) 14:00~17:00
장소: 진해장애인복지관 일대(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
대상: 창원시 내 시민 및 청소년, 가족 단위 모두 가능
내용: 다양한 체험 및 먹거리 부스 운영, 공연(댄스공연, 칸타빌레공연 등) 진행, 모두가 참여 가능한 게임 진행
문의: 진해청소년수련관 055·540·0169

기타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전례음악 교육

일시: 12월 2일(토)부터 매주 토 14:00~16:00 10주간
장소: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선착순 20명)
강사: 임석수 신부/ 등록문의: 051·519·0475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한국 진출 60주년 감사미사

일시: 11월 21일(화) 15:00
장소: 상평동성당
문의: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010·6805·7665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과정 모집

원서접수: 11월 13일(월)~2024년 2월 16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모임

일시: 11월 18일(토) 14:00
장소: 대구 프란치스코눔 교육관
대상: 만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원데이클래스

일시: 11월 18일(토) 14:00
장소: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원
내용: 원석 묵주팔지 만들기
대상: 청년/ 문의: 010·5639·8071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입학안내

입학설명회: 11월 25일(토) 14:00
겨울진학캠프: 2024년 1월 13일(토)~14일(주일)
대상: 현 초6학년/ 문의: 054·338·0530
▶전학 관련 사항은 교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세우기(버터 헬링거 박사의 사랑의 질서에 의한)

일시: 11월 26일(주일) 13:00~17:00
장소: 평생교육원 젊음의 집
대상: 성인(가족 포함)/ 참가비: 3만 원
문의: 055·255·8295, 010·7661·3832

제2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일시: 12월 17일(주일) 10:30~17:00
장소: 부산가정성당
대상: 혼인을 희망하는 짝 없는 가톨릭 신자로 33~45세(1990~1978년생) 미혼자
(2022년 제1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참석자 배제)
접수: 11월 26일(주일)까지, 선착순 남녀 각 30명
문의: 부산교구 가정사목국 051·441·3501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성탄전례 청년 피정

일시: 12월 23일(토)~25일(월) 2박 3일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가톨릭 세례를 받은 40세 이하 미혼 자매
문의: 010·9353·1773 김토마스 수녀

함안본당 제28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회장: 심병건(요셉)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권영규(엘리자)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이화숙(세실리아)
총무분과위원장: 김중외(안드레아)
재경분과위원장: 안영란(글라라)
전례분과위원장: 이진희(에스텔)
교육분과위원장: 김정옥(라파엘라)
지역분과위원장: 최석임(크리스티나)
홍보분과위원장: 강현주(데시데리오)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정용(베네딕토)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권영희(크리스티나)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최형수(요셉)
여성분과위원장: 노영순(아녜스)
시설분과위원장: 원승주(창흠베드로)
제11대 구읍공소회장: 이화숙(바오로)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위령미사

<마산-그라츠> 故 박기홍 몬시뇰, 故 하 마리아 선생 등 자매교구를 위해 헌신하고 선종하신 모든 분을 기억합니다.

일시: 11월 28일(화) 11:3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055·249·7016
▶점심식사 준비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1월 13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체성사의 은혜	마진우 요셉 신부(대구대교구 초전성당 주임)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살레시오회	11월 19일(주일)	창원 젊음의 집	유명일 신부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월 18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지금여기 사진관 김찬우(사도요한) 010-8949-7901 위치: 창원 용지호수앞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여터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 24년 1월 10일 이탈리아 일주 12일-570만원 ■ 24년 5월 13일 스페인 산티아고 10일-395만원(11월 30일까지 신청)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our.co.kr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문정임 켄마 시인/ 가톨릭문인회

동네 가운데 있는 성당을 가려면 우리 집에서는 걸어서 4분이 걸린다. 골목을 한 번만 꺾으면 된다. 그 골목 안에 지붕 위로 훌쩍 솟은 종려 3그루를 키우는 이웃이 있다. 울 동네 골목정원 위원인 나는 오가며 슬쩍 그 나무들을 훑쳐본다. 족히 10년은 넘었을 그 장대한 키와 위용을 멋 있었다. 그러나 허영게 바래버린, 추레한 노인네의 수염 자락 같은 진앞이 눈에 거슬렸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제거해 드릴 수 있을까? 삼단 사다리만을 생각하며 오가다가 어느 날 대문 곁에서 풀꽃 손질하는 노부인을 만났다.

“어머 안녕하세요?(하이톤으로 밝고 명랑하게) 꽃을 참 잘 가꾸시네요. 지나다니며 늘 궁금했어 요.” 너스레를 떨며 다가가서 ‘저는 저기 건너편에 사는 사람이고 꽃 좀 키운다’고 인사했다. 자기 정원 예쁘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는가. 주고받고 의기투합했다. 팔십 넘은 안노인이 50평 넘는 마당을 가꾸려니 잡풀도 우묵하니 나 있었다. 이웃에 화분 늘어 가고 가꾸고 하는 것 다 이 동네 골목정원 팀들이 하고 있다. 괜찮으시면 골목정원 팀에 가입하시면 좋겠다 등등 여러 말을 했던 것 같다. 접선에 성공하자 4분 거리를 달려가서 작업복에 장화까지 신고 와서 전문가 포스로 잡초 제거, 전정, 청소까지 씩씩 해치웠다. 이야기하다 보니 시모님 동향 분이셨다. 인적 사항도 확인이 되니 미심쩍어 하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듯 음료수를 권하며 미안타 미안타 하셨다. 결국 흰해진 마당가에서 저 진앞은 어쩔 것이냐, 큰 나무를 베어드릴까, 사다리를 가져와 쳐 드릴까 의논했다.

노인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성당 나오기를 권하러 왔느냐, 씬 없이 확인하기에 바쁘셨다. 아니 나는 그냥 나무 가꾸고 꽃 심고 모종 나누고 동네가 푸르고 예뻐지길 바랄 뿐이다 라고 해도 참 세상에 별 사람 다 보겠다는 얼굴이다. 남동생한테 여차저차하다 전화하니 차 기름값으로 해결해 주겠다 해서 약속하고 왔다. 다음날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드님이 설에 가서 큰 나무는 정리할 터이니 그만두라고 하란다고.

그도 그럴 것 같았다.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집보다 더 자연스럽게 풀을 매고 쓰레기를 차에 실어 치워주니까 뭔가 수상한데 아무래도 공짜라는 게 더욱 의심이 가는 거였다. 며칠 있다가 성당 다니는 어떤 이가 알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떠돌았나 보다. 구역 형님들이 ‘들어보니 너 같더라’며 확인 전화가 몇 차례 왔다. 그리고 사례를 못해 미안하다시더라고.

나는 그때 뭔가 느낌이 왔다. 아하 나의 하느님도 내게, 아니 우리들에게 오로지, 사심 없이, 순수하게 잘해 주고 싶어 하셨는데 내가, 우리가 끝없이 의심만 했구나! 못 미더워하는 분을 보니 참 알기가 쉬웠다. 지금껏 내게 축복이, 은총이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 순전히 내 잘못이구나, 내가 몰라보았던 것뿐이었구나. 단, 주님도 나에게 진앞이 있는지 썩은 가지가 너저분한지 늘 관찰하고 계시다가 이런 시혜를 참다못해 베푸신다는 거지.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 2(사무엘 15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의 순례 장소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는 히브리어로 언덕이나 구름을 의미하며, 예루살렘에서 베텔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사울이 임금이 되어 다스리던 시절에 기브아는 사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왕권을 굳혀가던 무렵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을 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족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들을 완전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즉시 군사를 모집하여 보병 이십만과 유다의 장정 일만을 데리고 아말렉 성읍으로 내려가 하월라에서 수르까지 아말렉족을 쳐서 그들의 임금 아각을 생포하고 나머지 군사는 모두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의 양떼와 소떼 가운데 최고의 것, 새끼 양들과 그밖에 좋은 것들은 없애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만 없애 버렸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위 때문에 하느님께서 사무엘 예언자에게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 역시 화가 났지만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도중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사울이 카르멜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행하였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나고 묻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말렉의 양떼와 소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남겨 두었으며, 나머지는 완전전멸하였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가 임금답게 행동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아말렉족을 완전전멸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아말렉 임금 아각을 사로잡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버렸는데, 군사들이 길갈에서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숫양의 굳기름보다 낫다고 선언하면서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였기에 주님도 사울을 왕위에서 배척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그는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야 할 임금이 군사들이 두려워서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그에게 지도자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부디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함께 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거절하고 돌아섭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의 겹옷 자락을 붙잡는 바람에 옷자락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사울에게서 찢어내어 더 훌륭한 사람에게 줄 것이며, 주님의 뜻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사울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무엘은 그와 함께 갔고, 사울은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길갈 성소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여 죽이고,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지만 사울을 두고 슬퍼하였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신 일을 후회하였습니다. 주님의 후회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돌이키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본래 계획이 실패에 부딪칠 때 하느님께서 구원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